

현대차그룹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

韓·日 대표 자동차기업, 레이싱 모터스포츠 활성화 맞손

현대차 'RN24' 등 경주차 전시 정의선 회장, 현장서 고객 소통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

글로벌 자동차 시장 1위 토요타와 3위 현대차그룹이 수소, 로보틱스에서 협업 관계를 구축한 가운데, 레이싱 모터스포츠를 띄우기 위해 협업했다.

현대차는 모터스포츠 문화 발전과 모터스포츠에 대한 고객들의 공감 확대를 위해 토요타와 함께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을 27일 개최했다.

이번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은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에 참여 중인 고성능 브랜드 현대 N과 토요타 가주 레이싱이 손잡고 양사의 고성능 양산차와 경주차를 선보이는 자리다.

페스티벌에서는 ▲고난이도 주행 버퍼폼스를 선보이는 '쇼런' ▲현대 N과 토요타 GR 차량을 보유한 고객들이 자신의 차량으로 트랙을 주행하는 '트랙 데이' ▲WRC 경주차에 고객이 동승해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 현장에서 정의선 회장과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체험하는 '택시 드라이빙' 등의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현대차와 토요타는 이번 행사에서 브랜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각 사의 차세대 친환경 고성능차 및 고성능 라인업, 경주차 등을 관람객에게 내놨다.

현대 N 부스에는 지난 25일 최초로 공개된 롤링랩 차량인 'RN24'를 전시했다. 현대차가 WRC에 처음 참가한 이래 10년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아이

오닉 5의 고성능 전기 PE 시스템, 차세대 차체 제어 기술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고성능 모델이다.

토요타 가주 레이싱 부스에는 액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콘셉트카 ▲O RC 루키 GR코롤라 H2 콘셉트 ▲GR 수프라 ▲GR86 등 고성능 차량이 전시됐다. 수소엔진차 'AE86 H2 콘셉트'를 전시하며 토요타의 과거부터 미래 비전까지 제시했다.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의 의지로 지난 2014년부터 WRC에 출전하는 등 수많은 모터스포츠 경기에 참가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고성능 차량용 서스펜션, 브레이크 시스템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과거부터 축적해온 기술을 발전시키며 '고성능 친환경차'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현대차와 토요타는 모터스포츠 문화 발전 및 고객 공감 확대를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양사 WRC 드라이버들 뿐만 아니라 정의선 회장과 아키오 회장도 직접 행사에 참가해 고객들과 차량 퍼레이드 등을 함께 했다.

정 회장은 "올해 초 아키오 회장을 만나 레이싱을 사랑하는 두 명이서 뭔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논의를 통해 이날 자리(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키오 회장은 인터스트리(산업) 내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많이 배우려고 한다"며 "오늘(아키오 회장의) 주행 실력을 보니 더욱 신뢰가 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N' 브랜드를 통해 고성능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며 "“심장이 뛰는 차”를 운전하고 싶은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티켓 예매 사이트가 개설되고 8일만에 관람석 전석이 매진되는 등 모터스포츠 팬들을 비롯한 수많은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현대차와 토요타는 국내 자동차 문화 발전 및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을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에 기부하기로 했다.

/박대성기자 iunmids@metroseoul.co.kr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 현대 N 부스 내 전시된 롤링랩 'RN24' /현대차그룹

K-조선, 악성 저가물량 해소 하반기 수익성 개선 빨라진다

고수익 선종 매출 비중 확대 조선3사, 3분기 호실적 기대감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을 이어가며 조선3사(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가 나란히 3분기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지속함으로써 실적 상승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3229억원, 1199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은 1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58% 상승한 수치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친환경 컨테이너선 등 고수익 선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또한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조선업계의 실적 개선은 과거 수주한 악성 저가 물량을 완전히 해소한 결과로 보고 있다. 앞서 조선업계는 2010년대 들어 불황의 터널을 겪었다.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촉발한 금융위기 이후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동안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해양플랜트 등의 수익성 다변화를 모색했으나 유가 급락의 직격탄을 맞으며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일감 확보를 위해 조선사들은 저가 수주 싸움을 이어간 바 있다.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해 LNG선 등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며 국내 조선업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2021년부터 조선 3사는 연간 선박 수주 목표량을 채우고 시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갔다.

수주행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총 169척, 188

억 4000만달러(25조 6789억원)를 수주해 연간 목표인 135억달러(18조 3978억원)의 139.5%를 초과 달성한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24척을 수주하며 연간 수주 목표액 97억달러의 56%인 54억달러를 채웠다. 회사 측은 친환경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FLNG 등 다수 프로젝트의 수주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연간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화오션은 올해부터 연간 수주 목표액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친환경 선박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사들이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실적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이용수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왼쪽부터), 루이스 루세로 아르헨티나 광업 차관, 김광복 포스코 아르헨티나 법인장, 구스타보 사멘즈 살타 주지사, 포스코홀딩스 김준형 이차전지소재총괄, 라울 하릴 카타마르카 주지사, 카를로스 사드리 후후이 주지사, 포스코이앤씨 이철무 플랜트사업본부장이 24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 살타 구에메스에서 개최된 수산화리튬 공장 준공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 준공

연산 2.5만t 규모... 소재보국 실현

포스코홀딩스가 해외 리튬사업을 통한 소재보국을 이뤄냈다.

포스코홀딩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리튬 염호에서 이차전지소재용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해 원료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 속 국내 공급망 안정화와 소재 분야 글로벌 초일류 기업 도약을 향한 결실을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4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 살타 구에메스에서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이는 포스코홀딩스가 계획중인 총 3단계 프로젝트 중 첫 단계의 준공으로, 100% 광권을 보유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의 염수를 활용하며, 고유의 리튬 추출 기술을 적용했다.

수산화리튬은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이차전지소재의 핵심인 양극재의 주원료로 '리튬-양극재-리사이클'로 이어지는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사업 풀밸류체인의 시작점이자 사업 경쟁력의 한 축이다. 포스코그룹은 해외 염호와

광산에 대한 소유권과 지분을 통해 염수·광석리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외 사업장에서 수산화리튬을 생산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미국의 IRA 등 다양한 조건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이차전지소재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글로벌 리튬 공급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아르헨티나 현지 염수리튬 공장 준공으로 전남 광양 울촌산단에 가동 중인 포스코필라리튬솔루션의 2만 1500톤 규모 광석리튬 기반 수산화리튬 공장을 포함해 염수와 광석자원 모두에서 이차전지소재용 수산화리튬 총 4만 6500톤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다.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소재총괄은 기념사에서 "이번 리튬 공장 준공은 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에서 고부가가치 리튬을 생산하는 중요한 첫 걸음으로, 후속 프로젝트들을 통해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리튬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제주항공, ESG 평가 2년 연속 통합 'A'

"도전·혁신 가치 아래 ESG 활동"

제주항공이 전사적인 환경 부문 리스크 최소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제주항공은 '2024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

항공은 ▲환경 부문 A+ ▲사회 부문 A+ ▲지배구조 부문 B+를 받아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통합 등급 A등급을 획득했다.

제주항공은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과 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비행'을 위해 연료 탑재량 분석 및 수하물 무게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데이터

기반 운항 전략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현재 운항 중인 항공기보다 연료 효율성이 15~20% 높은 차세대 항공기 B727-8의 비중을 2026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대한민국 항공 여행을 바꾼 제주항공만의 '도전'과 '혁신'의 가치 아래, 환경과 사회에 산재해 있는 난제들을 진정성 있는 ESG 활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